

생명보험산업의 연대적 성격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Solidarity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Industry

김 헌 수* · 김 재 현** · 김 기 덕***

Hunsoo Kim · Jaehyun Kim · Giduk Kim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경쟁력, 성과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경영학적 측면의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논문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활용하여 생명보험산업이 담고 있는 사회적 연대(solidarity)의 성격을 탐구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국가 주도로 과점적 시장으로 성장하다가 1980년대 후반 시장개방 이후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생명보험산업의 연대적 성격 역시 시대적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명보험협회장의 신년사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검증해 보았다. 강수택(2006)의 연대성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1970년대 국가경제발전을 내세운 관료적 연대에서 1986년 시장개방을 기점으로 전술적 연대로의 변화를 강하게 보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로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고객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전술적 연대와 도덕적 연대의 성격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문 색인어: 생명보험, 생명보험업, 연대, 연대성, 연대적 성격, 신년사, 내용분석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51605

*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briank@sch.ac.kr), 주저자

** 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부교수(rmikim@smu.ac.kr), 교신저자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gidukkim@sch.ac.kr)

논문 투고일: 2015. 08. 15, 논문 최종 수정일: 2016. 04. 17, 논문 게재 확정일: 2016. 05. 12

I.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상호간의 연대감에서 출발하였다. MacLean(1945)은 생명보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손실을 다수에게 분산시키는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협동(cooperation)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기도 하지만, 보험계약자 간의 연대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제도다. 이 연대감은 로마시대의 매장조합부터 중세의 길드, 근대의 우애조합 그리고 현대의 상호생명보험회사로 진화된다¹⁾. 그 후 보험계리 기법의 발전과 보험수요의 증대로 생명보험의 연대성(solidarity) 개념은 대수의 법칙과 최대신익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지만 정보비대칭하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²⁾.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위험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계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일본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이 등장한다.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생명보험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특히 제3공화국이 시작된 1963년부터이다(박광서, 1993). 선진국의 근대 생명보험회사는 상호회사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되었다. 상호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보험계약자가 배당이익으로 공유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상당한 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는 고객일 뿐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보험회사와 연대적 성격은 약하다³⁾.

1) 생명보험의 기원 및 매장조합에 관해서는 브라운(2010)을 참고하시오.

2) 홍윤기(2010)는 연대(연대성)를 복합적이며 중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개인과 구별되는 집단으로서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 집합성의 밀도가 가장 높은 상태와 가장 낮은 상태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정도를 정의하였다. 연대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2장에서 본격적으로 한다.

3) 하지만 배당상품(participating policies)은 관련성평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에 각각 배분되므로 연대적 성격이 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보험회사로 출발했던 우리나라 생명보험업에서 연대적 성격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양상이 서구와 다르듯이 생명보험업의 발전 양상 또한 서구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유럽에서 생명보험업은 수세기 동안 지역 공동체에서, 직업 공동체로 발전하고 나아가 불특정다수의 우애조합과 상호회사로 진화하였다가 주식회사로 발전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은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질곡으로 ‘계’라는 원시보험 형태에서 직업 공동체, 우애조합이나 상호회사라는 과정 없이 바로 현대적 주식회사로 탈바꿈하였다(김현수 외, 2013). 이 논문은 우리나라 근대 생명보험업 기원의 특수성과 발전과정의 변동성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양상의 연대적 성격을 조명하고 분석한다. 즉, 한국 경제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난관을 거친 후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경제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한 생명보험에 과연 어떤 성격의 연대성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연대성은 산업 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성격이 변했는지를 분석한다⁴⁾.

지금까지 생명보험회사나 생명보험 경영에 대한 연구는 보험의 기능 및 보험 종류별로 성과 등을 주로 양적으로 분석하였다⁵⁾. 특히 생명보험이 성장하기 시작한 1970년 중반부터는 보험회사의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보험 기능 및 보험제도의 효과성을 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보험회사, 경영적 차원이나 보험 기능 및 종목에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사회적 역할 및 연대적 성격이라는 차원에서 생명보험 성격을 질적으로 분석한다⁶⁾. 부연하자면 이 연구는 사회적 연대 성격을 분석하는 데 적

4)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한 생명보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1960년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소위 개발경제시대에 집중되었다. 후술하겠지만, 방갑수·구하서·박은희(1965)의 논문은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논하였고, 진륜현(1972)은 보험의 금융적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 기여를 탐구하였으며, 이경룡(1979)은 국민경제와 생명보험산업과의 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5) 보험학회의 ‘보험학 50년’은 보험 연구를 보험법학, 보험경제, 보험마케팅, 보험재무, 보험경영 일반으로 기능별로 나누고, 상품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였다.

6) 여기서 질적 분석이란 객관적으로 수집된 수량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

합하다고 판단되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1960년대 이후 생명보험산업이 담당하고 지향했던 연대적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산업은 민영보험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⁷⁾. 그러나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과 보험설계사 정착률 때문에 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도 ‘신뢰도를 제고하자’는 구호 외에 어떻게 신뢰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를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생명보험의 사회적 성격 및 연대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가 학문적 진공 상태에 있는 이 분야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범위, 분석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생명보험산업이 요구받았던 시대별 역할 및 성격의 변화를 연대성(solidarity)이라는 관점에서 질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이다⁸⁾. 따라서 이 논문은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산업의 연대적 성격이 어떻게 변화와 진화를 거듭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회장)의 신년사’를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하고자 한다.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연합 단체로서 생명보험산업을 대변하며, 따라서 생보협회장의 신년사란 협회장의 개인적인 성향이 묻어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신년 인사는 아니며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대내외 이해관계

구(quantitative research)와는 달리 연구대상으로부터 직접 얻어진 인터뷰 자료나 시각적 자료를 텍스트화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는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주로 사용하는 분석을 의미한다(플릭, 2009: 21-43). 특히 생명보험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이들이 처한 구체적 맥락이 담긴 질적 자료의 분석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성격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플릭, 2009: 31).

- 7)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2014), 진익 · 오병국 · 이성은(2013) 등이 사회안전망에서의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8) 이 논문의 연대 개념은 홍윤기(2010)를 활용한다. 그리고 논문에서 연대와 연대성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연대성은 연대가 가지는 속성이나 특성을 보다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연대는 연대성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자, 정부 및 사회 전체에 제시하는 생명보험산업의 현실 상황 인식이며, 자기 선언이며, 생명보험산업의 비전이다. 그러므로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보험업계는 스스로를 어떤 연대적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연대를 선언했는지, 그리고 어떤 연대를 지향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은 생명보험 회사 또는 산업이 보험가입자 등 특정대상에 대해 지향하는 연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일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에서는 특정 시대에 생명보험 산업이 자신의 다양한 연대 대상과 각각 어떻게 개별적인 연대를 구축하였는지를 경험적인 자료로 상세하게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논문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생명보험산업이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사회적 혹은 공공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일환으로 어떠한 성격의 연대를 지향하고 표명하였는지를 질적인 자료를 통해 역동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는 중첩적,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의 성격 역시 단순 명료하게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집단의 연대로 분류되고 정리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생보협회와 같은 단일 집단이 지향하는 연대 역시 동태적인 동시에 중첩적이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⁹⁾. 따라서 연구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생보협회의 연대 선언은 선언대상, 선언내용, 선언의 성격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동시에 특정시기에 생명보험 회사 또는 산업이 선택한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석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대의 차원이다. 한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는 제도적 차원에서 전 국가단위로 실시되는 국가적 사회연대(solidarité nationale)도 있지만 사회 내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동업조합적 사회연대(solidarité corporatistes)도 있다(Ludovic, 2011; 이은주,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 분석주체인 생보협회 역시 주어진 시대상황에 해당하는 국가적 연대의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생보협회라는 동

9) 사회적 연대가 단일집단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복합적이고 중첩적일 수 있다는 설명은 이은주(2014)의 75-77쪽을 참조하시오.

업조합 내부의 연대를 동시에 지향하고 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60년대와 70년대의 경우 생보협회는 전 국민 혹은 사회전체를 선언의 대상으로 하여 관료적 연대를 주창하는 동시에 생보협회 회원들 간에는 이와 구별되는 상이한 차원의 연대전략을 지향하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접어들어 현재적, 잠재적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술적 연대를 제시하면서 협회원들 내부에서는 이러한 연대를 강화하고 구현하는 내부 연대 전략을 별도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험산업이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를 전술적 연대로 파악하고 이를 지향할 경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의 대상으로 파악된 소비자와의 관계를 전술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이해관계를 정당화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술적 연대를 추구하기 위한 집단내적 연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대는 국가나 관련기업, 혹은 일반 국민 역시 전술적 연대를 그 시대에 타당한 연대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다시 말해 국가적 사회연대의 분위기는 전술적 연대를 중핵으로 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I. 생명보험업의 성격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생명보험산업이나 회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줄기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첫째, 국가경제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규범적 연구, 둘째, 민영보험과 사회보험(보장)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 셋째, 국가경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한 실증연구,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업을 관찰한 연구이다.

첫째 줄기는 초기 연구로 생명보험의 국가경제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10) 이 분류는 생명보험의 세부 분야 연구 즉, 상품, 계리, 회계, 자산운용, 규제, 법 등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으며, 연구자의 분류는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다.

연구였다. 예를 들면 한동호(1964)는 보험이 자본주의 경제의 빠질 수 없는 톱니 중 하나라는 독일 경제학자 Werner Sombart의 말을 인용하며 보험의 국가경제에서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방갑수 외(1965)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형성에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은희(1970)는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1970년대를 보험산업이 번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진단하였다. 진륜현(1972)도 보험이 본질적 기능인 우연적 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시설이면서 금융적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영의(1979)는 정부가 보험산업을 사회보장과 내자동원의 정책수단으로서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들은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사회안정과 자본조달이 시급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연구로는 민영보험과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방갑수(1964)는 사회보험을 보험체계의 일부로 인식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회보장과 자본(민영보험)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최초의 연구이다. 생명보험연구위원회(1966)는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영생명보험이 발달한 후에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단계적으로 발달해나가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사회보험은 저위(低位)의 보장을 제공할 때 민영보험과의 공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학문적 견지는 김진목(1977)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보험산업의 기본 입장으로서는 자리매김한다.

세 번째 연구 줄기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발표된 것으로 보험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성과 및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실증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김종국, 송덕진(2006)은 생명보험이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을 보여주었고, 남상욱(2006)은 국민소득, 저축액,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들과 보험업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과 보험산업이 서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허용 등으로 보험산업이 타 금융권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보험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재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 연구 줄기는 생명보험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한 연구다. 제라이저(1983, 2006)는 미국의 생명보험의 도입과 성장을 사회학적으로 논하였다. 미국 사회는 생명보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가 1840년 전후 생명보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라이저는 그 성장 원인을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저항, 생명보험에 대한 종교적 신념의 변화, 죽음에 대한 가치관 변화 나아가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보험대리인(insurance agents)의 등장 등으로 분석하였다. 조영훈(2004)은 국내에서 민간보험의 성장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는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는 국가 책임의 최소화가 특징이라고 하면서 민간보험에 호의적인 정부 정책을 근거로 당시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은 자유주의라고 주장한다. 손호철(2005)은 민간보험의 규모 증가를 근거로 민간보험의 시장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정부의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신자유주의 관철론’ 주장에 대해 남찬섭(2008)은 기존 연구가 제시한 통계 자료가 매우 한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통계를 고려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원·백승욱(2012)은 생명보험업 사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자들은 생명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리스크관리의 대표주자인 보험산업은 ‘이차 역마진’이라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보험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리스크를 보험사에서 가입자로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택하였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등 가입자에게 리스크를 부담을 전가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을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상품에의 가입이라는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경제력을 지닌 주체에게 자율적인 책무성을 강조하고....”(논문 요약에서 발췌, 88쪽)

이지원·백승욱(2012)은 생명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을 1997년 금융위기로 파악하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변액보험과 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영업전략으로는 경제 주체의 자율적인 책무를 강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결론은 두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첫째, 생명보험산업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시점은 1997년 금융위기 시점이라기보다는 1986년 시장개방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개방은 레이건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시장 개방 결과 생보사는 6개에서 33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생보사 간 과도한 양적 경쟁이 지속되면서 생보사 부실이 심화되었다¹¹⁾.

둘째, 보험사의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출시가 리스크를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려는 신자유주의 전략이라고 단정한 것은 생명보험사의 경영전략을 이념화한 것으로 비판한다. 생보사의 상품 출시는 다른 사기업의 신상품 출시 동기 및 전략과 마찬가지로 신수요 창출, 수익 증가 및 경영 안정화하려는 수단이다. 따라서 변액상품의 출시는 수익성을 요구하는 수요자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그리고 금리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전략이다. 종신보험의 본격적인 출시는 프루덴셜생명이 시장 진입과 함께 일으킨 고소득자에 대한 종신보험 수요를 중산층으로 확대시켰고, 저축성상품에 쏠려있는 생명보험 포트폴리오를 보다 안정적인 보장성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의 시발점이었다¹²⁾. 요약하면 생명보험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은 자료에 나타난 외부적 양상에 근거하여 신자유주의 논쟁의 틀에 민영생명보험을 포함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생명보험의 성장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생명보험의 연대적 성격과 연대성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11) 류근욱(1998)은 시장개방 속에서 보험감독정책 과제를 논하면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였다.

12) 이근창(2014)은 1990년대의 프루덴셜생명의 종신보험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II. 연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¹³⁾

1. 연대의 개념과 관련 쟁점

연대는 전체에 대한 의무(obligation for the whole), 공동빚(common debt), 공동 채무(joint liability), 연대적 책무(solidary obligation) 등을 개념의 기원으로 한다(박길성, 2012). 다시 말해 연대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간이 연대를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인간 조건의 허약성(feebleness)에 있다.¹⁴⁾ 따라서 인간이 타인과 연대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실존적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대는 인간의 생존과 자기보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간 본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연대를 통해 얻는 상대적인 이익과 효용도 매우 큰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대는 “모든 타자들이 각자 독특한 관심을 갖고 조우하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관계 안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비인간화 상황과 문제에 대해 공화국과 지구 전체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차이를 상호의존의 근거로 삼아 더 많은 인간의 효용성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여 구체적 행위로 결합해 공동행위의 의무를 다 함께 이행하여 비인간화와 인간문제에서 공동으로 해방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홍윤기, 2010).

연대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과 욕구에 근거하고 있기에 인류 역사의 전 시대에 걸쳐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 시기와 장소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이 달라지는 역사적 존재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연대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첨예

13) 이장의 내용은 김현수 외(2013)의 일부(pp. 13-54)를 본 논문의 문제제기에 적절하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다.

14) 인간의 허약성은 자연세계 안에 태어나야만 했던 인간의 무대책성(measurelessness), 자기보다 강한 자연환경과 아울러 다른 인간의 침탈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단독으로 생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인간 노동의 불안정성(instability), 어떤 타자의 인정도 없는 상태에서 닥치는 실존의 불완전성(incompleteness) 등으로 세분된다(홍윤기, 2010: 51-52).

한 정치철학적 논쟁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

첫째, 연대를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의 논쟁이 있다. 연대는 개별 인간이 아니라 집합적 결사체를 상정한 정치공동체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공동체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연대 개념의 내용과 지향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대와 관련하여 현대의 정치 공동체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치적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화주의(republicanism)로 구분된다(장은주, 2007).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정치공동체의 존재이유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의 성격과 추구할 내용은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호판단의 문제로 축소되고 타인들과의 연대나 상호작용의 가치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연대는 절차적 공정성이나 투명성 등을 근간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공동체적 결합이다. 반면 공화주의는 정치공동체의 본성을 대화와 상호작용으로 연결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적 통합과 집합적 의지형성으로 바라본다. 공화주의 역시 개인들이 가지는 자가지배적(self-governing) 정치활동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때의 자가지배는 고립된 개인으로서 행사되는 지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적 자유이자 지배이다(장은주, 2007). 따라서 공화주의 모델에서는 사회를 형성하는 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대가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둘째, 연대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을 지닌다. 연대는 단순히 이념적 지표나 도덕적 기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구체적 제도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연대가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가에 대해 몇 가지 대립이 존재한다. 먼저 연대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연대보다 정의의 차원에서 사회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점점 다원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공감과 형제애 등과 같은 정서적 결속만으로 연대는 지속될 수 없으며 보다 확고한 연대의 정초지점이 필요하며, 이때 무엇보다 필수적인 도

덕적 가치를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고 본다(남현주, 2009). 이에 의하면 연대가 막연한 이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공동체의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구성원들과 목적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고통과 분담을 나눌 수 있어야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분배의 문제를 포함한 사회정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연대가 보다 확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 쟁점은 흔히 ‘권리의 공동체’와 ‘연대의 공동체’ 논의로 불린다(정대성, 2010). 권리의 공동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결속을 위해서는 연대보다는 권리의 개념이 보다 적실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연대의 공동체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며, 우리의 감정과 감각은 추상적인 권리나 이념 보다는 역사, 정체성, 정서적 구성물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결국, 권리의 공동체와 연대의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연대의 본질과 효과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은 개인 간의 관계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본질과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에서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연대의 유형화

가. 사회적 연대 유형화의 기준

보험협회장의 신년사를 통해 보험산업의 연대적 성격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시대상황에 따른 연대의 성격변화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수적 과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자 강수택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연대의 유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강수택, 2006). 그의 유형론은 ‘연대의 지향성’, ‘연대의 근거’, ‘연대관계의 성격’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8가지 유형으로 연대를 범주화한다.

먼저 연대 형성의 근본 목적을 의미하는 ‘연대의 지향성’은 연대의 목적이 본질적(intrinsic)인지 아니면 도구적(instrumental)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만약 연대

형성이 본질적이라면 연대 형성의 의도나 욕구는 타고난 본성으로서 자연적인 것이며 연대는 그 자체가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 두 번째 유형화의 기준은 연대 형성의 기반을 의미하는 ‘연대의 근거’이다. 일반적으로 연대를 형성하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간이 가진 감정이나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 혹은 합리성이다. 예를 들어 연대의 근거가 감정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타고난 감정과 정서 속에 타인과 연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바램과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연대를 형성하는 ‘관계의 성격’이다. 관계의 성격이란 연대를 형성하는 개인과 연대를 통해 형성된 결사체 간의 성격과 아울러 연대를 구성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가 가진 성격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연대의 성격이란 개인들이 자신들이 형성한 결사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사체에 참여하여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조합하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 모두 8가지의 사회적 연대의 유형이 구성된다(강수택, 2006).

〈Table 1〉 Types of Social Solidarity

The table shows the diverse types of social solidarity categorized by the essential components of social solidarity as a criterion, orientation, basis, and relationship of social solidarity.

		Orientation			
		Intrinsic		Instrumental	
Basis		Emotion	Rationality	Emotion	Rationality
Nature of Relationship	Heteronomy	type 1 premodern communitarian solidarity	type 2 sectarian solidarity	type 3 ideological solidarity	type 4 bureaucratic solidarity
	Autonomy	type 5 aesthetic solidarity	type 6 reflexive solidarity	type 7 moral solidarity	type 8 strategic solidarity

나. 사회적 연대 유형의 내용과 특징

위에서 제시된 연대의 유형들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근대이전의 사회적 연대, 초기근대의 사회적 연대, 후기 근대의 사회적 연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대상이 근대사회인 점을 고려하여 주로 초기 근대와 후기 근대를 중심으로 연대의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초기 근대의 연대 유형으로는 유형 2의 분파적 연대, 유형 3의 이데올로기적 연대, 유형 4의 관료적 연대를 들 수 있다. 이들 유형을 초기 근대의 사회적 연대 유형으로 분류한 가장 큰 이유는 연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자유와 자율성의 정도가 후기 근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초기 근대의 유형들은 연대형성의 목적이나 연대근거는 상이하나 연대를 형성하는 개인의 자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근대 사회의 발전 초기에 집합적 성격의 조직정서가 강조되는 시기에 주로 나타났던 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파적 연대로 명명된 유형 2는 연대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혈연이나 지연에 근거한 전근대적 정서와 감정이 아니라 근대적 가치관과 이념에 대한 합리적인 정당화가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일단 가치관의 정당화가 합리적으로 결성되면 이는 강력한 억압적인 힘으로 존재하게 되어 연대를 형성하는 개별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하게 억압하게 된다. 이데올로기적 연대로 명명된 유형 3의 연대는 연대형성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제공되는 집합적 정서와 감정이 연대 형성의 근거가 된다. 집단적 정서는 비민주적 구조로 제공되고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활용하여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연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자율성은 매우 약한 편이다. 관료제적 연대라고 명명된 유형 4는 유형 3과 마찬가지로 연대 형성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인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연대를 형성하여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임을 모든 구성원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대가 적절하다는 것이 합리

적으로 일단 승인되고 난 이후 구축된 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상당히 비민주적일 수 있다.

후기 근대적 유형의 사회적 연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으로 근대 초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와 자율성이 크게 부각되며 참여와 탈퇴의 자유 역시 크다는 것이다. 먼저 미학적 연대라고 명명된 유형 5의 연대는 형성 자체가 목적인 연대로서 연대를 형성하여 특정 조직에 속하는 것이 인간의 본원적 속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연대 형성을 통해 공유하는 감정적, 정서적 체험이 연대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강한 정서적 교감이 연대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학적 연대는 급격하게 와해된다. 유형 6의 성찰적 연대는 연대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앞서 설명한 미학적 연대와 유사하지만, 미학적 연대가 연대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나 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성찰적 연대는 합리성을 연대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특정 목적과 적절한 수단과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아니라, 연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합리성이다. 도덕적 연대로 명명된 7번 유형의 사회적 연대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성되는 연대이지만, 연대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자율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에 의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일견 유사한 측면을 보이지만, 연대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유와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면에서 명확하게 구별된다.

후기 근대 사회의 사회적 연대의 마지막 유형인 8번째 전술적 연대는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연대가 결성되며, 개인은 매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행동을 취하며 가입과 탈퇴가 매우 자유롭고 개인들 간의 관계도 평등하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의 형성과 운영은 연대를 형성하는 주체들의 감정이나 정서보다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을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유형의 연대는 전술적 연대라고 명명되고 있다. 이상의 사회적 연대의 유형

에 대한 논의를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2〉 Comparisons of Social Solidarity Types

The table shows the comparative features among types of social solidarity in terms of orientation, basis, relationship of social solidarity, and typical examples of each type.

	Orientation	Basis	Relationship	Examples
type 1	Intrinsic	sympathy or responsibility emotion	heteronomous and exclusive	premodern/ blood relation, regionalism or social status ascriptive groups
type 2	Intrinsic	rational justification	collective and exclusive	utopian revolutionary groups
type 3	Instrumental	emotion	limited autonomous	fascist organization
type 4	Instrumental	rationality	limited autonomous and authoritarian	modern bureaucratic organization
type 5	Intrinsic	emotion or unity, security	autonomous	festival/event participant or cyber community
type 6	Intrinsic	communicational rationality	autonomous and individualistic	cooperative association
type 7	Instrumental	voluntarism/emotion /concern for others	autonomous and individualistic	same taste or hobby groups
type 8	Instrumental	strategic rationality	autonomous and open	modern civil society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

IV. 생명보험의 연대성 분석

1. 분석 방법

가. 자료 분석 방법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생명보험협회』가 창간한 ‘생명보험’誌에 1974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실렸던 신년사이다. 생명보험협회장의 신년사는 발간 당시 보험산업이 나아가려는 발전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된다. 신년사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해서 권두언(卷頭言, 1975, 1981), 협회장 취임사(1978), 협회 창립 기념사(1980)를 활용하였다¹⁵⁾. 신년사에 어떠한 성격의 연대 개념이 담겨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구두 혹은 서면 자료들을 범주화하거나 코딩하여 자료에 담겨 있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내는 방법이다(김지혜 외, 2013).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연도별로 신년사의 내용을 문장별로 세분화한 후 이들 문장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을 선별하였다. 그 다음 선별된 문장에 담겨 있는 주제어(keyword)를 추출하였다. 이들 주제어를 면밀히 고찰하여 이들 주제어들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연대의 유형론의 내용들과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해 연도의 신년사에서 드러난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이 어떤 종류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지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으로 추출된 연대의 유형이 가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년도 신년사로부터 드러난 특성이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연도의 경제사회적 조건과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대의 특성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중요

15) 분석대상이 되는 연도 가운데 1982, 1983, 1986년 3개년은 발간자인 생명보험협회에서 초차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 시기를 전후하여 해당 시기의 관련 경제사회적 변화들을 자세히 고찰하여 그와 같은 연대개념의 등장의 타당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전적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 특히 역사적 문헌자료의 수집 및 해석과 관련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역사를 전공하고 질적 연구방법론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연구자로부터 교육과 자문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구자별로 나누어 진행된 자료는 반드시 여러 차례의 집단 토론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해석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자료 분석의 실제 사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은 주어진 문헌자료의 문장들로부터 개방코딩을 실시하여 핵심개념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의 원용이다. 개방코딩은 질적 자료 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역사적 자료들이 가진 주제를 분명히 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최옥채, 2011). 본 연구에서도 당해 연도의 신년사를 대상으로 핵심개념을 전부 추출한 후 이들을 하위주제로 삼아 연대의 유형이라는 보다 큰 주제로 진전하는 개방코딩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방법을 1975년의 신년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본다. 1975년 봄에 나온 생보협회의 신년사는 총 17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의례적인 인사말 등을 제거하면 핵심문장 5개로 줄어든다. 이 5개의 핵심문장에서 각각 핵심어를 선별하고, 이를 미리 선정한 9개 주제어로 분류하는 작업이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주제어 선정은 연구자가 모든 신년사를 핵심어 단계까지 분류한 후 토의를 걸쳐 이루어졌다. 각 주제어는 상호 독립적이게끔 선정되었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신뢰회복 그리고 경영선진화와 경쟁력강화의 경우, 각각 전자가 후자의 필요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문장 내 빈도와 메시지의 무게를 고려하여 별도의 주제어로 분류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the New Year's Address in 1975
by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The table shows the important sentences of the New Year's address in 1975 by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Keywords are selected from each sentence and classif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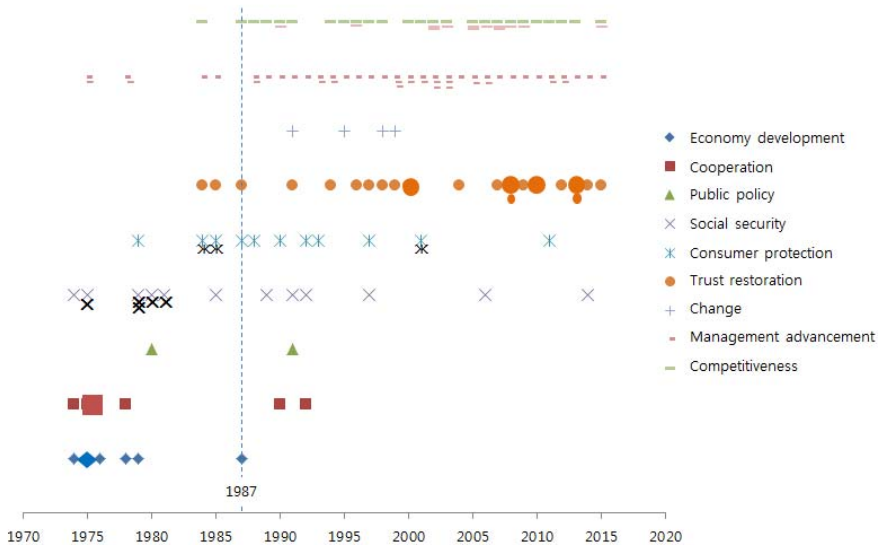
	Contents	Keyword	Classification
Issue	1975. spring	-	-
Title	Insurers who work in pride	-	-
Author	President Jong-Hoon Won	-	-
Number of sentence	17	-	-
Key sentence1	Life insurance business requires cooperation and solidarity more than any other business	cooperation, solidarity	cooperation
Key sentence2	It is because the life insurance business focuses on being a social measure by stabilizing people's life and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rather than pursuing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shareholders	social measure,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economy development
Key sentence3	Insurance companies should change into a trustworthy 'market-friendly company', through price and service competitions. For this, it is essential to innovate the distribution structure; by focusing on consumer utility and reducing financial expenses.	market-friendly, consumer utility, reducing expenses.	management advancement, consumer protection
Key sentence4	Only when we build up a sound management in insurance through cooperation and solidarity, can we strongly achieve public welfare and national wealth.	public welfare, national wealth	social security, economy development
Key sentence5	Insurers who work in pride as an active member of the social security...	active member of the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2.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연대성 분석

앞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신년사에 등장하는 연대 관련 주제가 해당 연도에 나타나는 빈도를 아래 그래프로 같이 정리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동일 신년사에서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그래프에서 점의 크기나 빈도를 통해 나타냈다. 굳이 표가 아닌 그래프를 사용된 이유는 연도별 주제어 변화 추이를 전달하기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더불어 연구의 간결성을 도모할 목적도 있어서이다.

〈Figure 1〉 Distribution Chart of Keywords in New Year's Addresses
by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from 1974 to 2015

The figure shows the distribution of classified keywords in New Year's addresses from 1974 to 2015. The majority of keywords have been changed and heavily focuses on competitiveness and trust restoration in recent years.



신년사에서 드러나 주제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연대분석의 상황 자료가 된다. 연구자는 설명의 개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황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는 경제개발이나 사회보장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연대를 표명하는 주제가 등장하다가, 1990년대부터 줄곧 경영선진화나 경쟁력 강화 등 보다 좁은 범위의 생보협회 회원 간의 연대(동업조합적 연대)를 강조하는 주제가 주로 제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970년대 생보협회장의 신년사의 주제는 경제개발, 사회보장, 협력 등이다. 생보산업은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수입보험료가 25억 7천 8백만 원에서 6,036억 2천 2백만 원으로 연평균 43.8%이란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당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옮기지 반영한다. 한국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점으로 수출과 외자주도형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정부는 내자(內資)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¹⁶⁾. 정부는 1962년 국민저축조합법을 제정하여 기업이나 학교에서 단체저축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 때 생명보험회사도 저축기관으로 지정되어 보유계약의 70%를 단체보험으로 확보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¹⁷⁾. 또한 1968년 11월 1일 보험의 날을 계기로 보험산업은 산업의 경제발전과 복지사회건설 기여를 다짐한다. 보험산업은 경제개발이란 국가적 사명을 위한 일역을 자임했고, 그 같은 의식은 1970년대의 생보협회의 신년사에서 빠짐없이 드러난다. 생보협회장 신년사의 주제로서 경제개발과 사회보장이 주종을 이룬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처럼 생협에게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차원의 큰 연대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한편, 그런 와중에서도 생협의 신년사는 동업조합적 연대의 시그널도 계속 드러내고 있다. 1970년대 정부는 공동상품 개발제도의 도입, 표준약관의 사용, 국민생명표의 사용, 보험모집인의 자격요건 강화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중심에는 1977년 보험업법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은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 억제통해 과점체제를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었다¹⁸⁾. 따라서 생보산업에서도 소수의 기업집단에 국가 자원을 집

16) 경제개발초기 필요자금의 54.3%를 외자에 의존하였다(김철환, 1981).

17) 생명보험협회(2010), **생명보험협회 60년사**, p. 62. 1962년은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상법(보험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오늘의 보험산업이 있게끔 만든 제도들이 마련된 시기였다.

증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던 경제개발 전략이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보사에게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안정된 매출기반을 제공하고, 생보사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다¹⁹⁾. 따라서 이후와는 달리 협력이란 주제가 등장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까지 생보산업이 모색했던 연대는 관료적 연대로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국가의 구성 집단이 연대하여야 한다는 당위감이 팽배한 시기였고,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대감의 공고화는 국가 관료에 의해 주도되고 기타 사회집단들이 전략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주의적 방식의 연대몰이가 진행되었지만, 연대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내자를 중심으로 동원하는 것의 타당성과 더불어 생보산업의 운영 역시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예를 들어, 공동상품개발, 표준약관, 국민생명표, 보험모집인의 자격요건 등은 대표적인 사업합리화와 효율화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관료제적 연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단 연대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방식은 상당히 비민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연대의 합리적 목적이 충분히 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전파되지 않을 경우 다소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연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영선진화나 경쟁력강화 등 작은 차원의 동업조합적 연대가 등장하여 지금까지 단골 주저어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80년대 정부는 상품 T/O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사의 보장성보험 단독 개발을 허용하는 등 산업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였다. 이런 조치는 198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 압력과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18) 1962년 정부는 9개 생보사를 6개로 정비하였고, 1973년까지 이중 5개사가 대기업에 의해 인수된다. 생보사를 인수한 대기업은 신동아그룹(대한생명), 태광산업(흥국생명), 조양상선그룹(제일생명), 삼성그룹(동방생명), 서울통산(동해생명) 등이었다. 전계서 p. 67.

19) 이순재·김재현(2014)은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정부의 보호주의와 대형 보험사가 이끄는 선단식 경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생보시장은 1987년 LINA와 ALICO 지점설립으로 시작으로 1997년까지 총 15개의 외국사가 진입하게 되었고, 동시에 총 15개의 국내 생보사가 신설되었다. 결국 1987년 이후 1997년까지 11년 동안 6개 생보사가 33개로 급증함에 따라 25년 가까이 유지해왔던 과점체제가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²⁰⁾. 정부도 생명보험에서 1994년 유지비를 시작으로 위험률차, 이차배당,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등으로 자율자율화를 단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87년을 우리나라 생명보험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규정한다.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이 해를 기점으로 생보사는 공존을 위한 선단식 경영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의 개방과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²¹⁾.

한편, 소비자보호와 신뢰회복이란 주제어도 1980년대부터 등장한다. 당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 경영효율화지침을 마련하여 모집질서의 정화 및 유지율 제고를 추진하였다. 높은 해약률, 불완전판매, 허위계약 등 고도성장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면서 생보협회장도 산업의 신뢰회복을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생보사들이 새로운 보험소비의 창출이 절실했거니와, 자본과 오랜 역사를 지닌 외국계 생보사의 진출은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국내 생보사를 긴장시키는 계층이었다. 이에 따라 생보산업은 관료적 연대를 강조하던 경영전략을 버리고 전술적 연대를 구사하기 시작한다. 경영선진화나 경쟁력강화는 개별 생보사의 이슈일 수 있으나, 외국사에 대응하기 위한 생보산업 공동의 과제였고, 소비자보호와 신뢰회복 역시 공통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의 연대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시장개방의 여파로 기존의 권위주의적 합리성으로 유지되던 연대의 결속이 해체되고, 보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연대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각각의 생보사는 관료제적 연대가 가진 무게와 불편함을 벗어 던지고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해 나가지

20) 외국사의 진출형태는 지점 합작사, 현지법인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점을 제외하면 신설생명보험회사는 27개가 된다.

21) 구하서(1983)는 1980년대가 개발경제 아래 경쟁 제한적 환경에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보험산업에 일대 전환기가 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또한 동 연구를 기점으로 보험산업 연구의 의제로 국제화와 기업경영의 자율화가 등장하였다. 김성재(1993)와 정홍주(1997)도 개방화와 자유화 속에서 필요한 보험사의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만, 외국자본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술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대응한다. 이러한 연대는 철저하게 전략적 합리성에 근거한 연대이며, 연대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지닌다. 이 역시 세계화, 자유화 등의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에서 보듯이 1990년대에 주목할 주제어는 ‘변화’다. 1995년 OECD 가입을 앞두고 경제적 수요심사(ENT) 제도가 폐지되면서 비로소 생보시장 완전개방이 이루어진다. 생보사의 수적 팽창은 과열경쟁을 불러왔지만, 기존사와 신생사 모두 구태의연한 경영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생 생보사는 고이율·고배당 저축성상품을 고비용·저효율 대면채널로 모집하는 기존사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기존사도 남성 전문설계사와 보장성보험을 들고 나온 외국생보사를 모방하려고 했으나 체질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 와중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해약률 급증으로 기반이 취약한 신설 생보사는 퇴출의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생보산업은 계약이전 및 합병으로 15개사가 정리되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4개사가 신설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는다. 바야흐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환경이 도래한 것이다²²⁾.

1990년대가 변화를 모색하던 시대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 생보산업의 화두(話頭)는 경영선진화, 경쟁력강화 그리고 신뢰회복이다²³⁾.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기업은 경영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물결 속에서 생보사에게 경쟁의 지평이 손보사를 넘어 은행과 증권회사로 확장되면서, 효율적인 상품과 판매채널의 믹스가 요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보사에게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담보할 경영투명성과 수익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효과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재무건전성 기준강화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등이 의제(議題)로 등장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따라서 2000년대의 생보사의 전략이나 정부의 생

22) 생보시장 개방 이후의 과열경쟁과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은 생명보험협회가 발간한 생명보험협회지(2010)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3) 신뢰회복은 보험산업의 숙원과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신뢰회복을 위한 요건이 되는 보험윤리는 이경룡(1995), 이경룡·이봉주(2003)에 이르러 학문적으로 다루어진다.

보산업 정책은 경영의 자율화와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²⁴⁾.

한편, 2005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신년사에서 소비자로부터 생보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호소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생보산업이 소비자의 지지가 없는 경영선진화는 무의미함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험에 대한 오래된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야 진정한 선진 보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생보사는 연대와 관련하여 이중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보인다. 생보사들은 지속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은행과 증권회사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관련 집단과는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간다. 이와 같이 사업영역에서는 전형적인 기술적 연대를 추구해 나가지만 고객과의 연대에서는 합리적인 전략적 연대와 더불어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감정과 정서를 교류하고자 하는 도덕적 연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한다. 고객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측면과 아울러 고객의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고 동정과 배려 혹은 상호책임과 같은 도덕적인 감정도 적절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인구고령화와 경제발전의 결과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6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친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겪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인구의 급증과 국민의 웰빙 니즈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평균 40%에 이르는 자기부담률을 요구했다. 그러자 생보산업은 연금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을 내세운다. 그 같은 생보산업의 전략은 사회보험의 보완적인 위치에 서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생보사의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반응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했다²⁵⁾. 국

24) 금융감독원은 199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산업 정책이 자율규제, 경쟁지향적, 재무건전성 강화 등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25) 2000년대 초반 공적보험 측에서 바라보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시각은 김창보·박종연(2003)에서 재정이나 역할 등 다각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담당하는 민영건강보험의 팽창은 비급여 부분을 줄이려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일부 여론은 주요 생보사가 재벌의 계열사임을 들어 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사유화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생보산업은 자임해왔던 사회보장의 일역을 구체화시킬 기회를 맞았으나, 오히려 사회보장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부터 배척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협회장의 신년사에서 사회보장을 언급하는 내용은 1990년대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의 신년사에서는 사회보장을 생명보험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생보산업에서 사회보험을 생명보험의 경쟁적 관계로 인식한 탓도 있겠으나, 당시 사회보험이 태동기에 놓여있던 탓에 사회보험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역할과 범위가 정착된 1990년대에 들어와 생명보험산업은 미완(未完)의 사회보험을 보완하면서 그 속에서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예전보다는 빈도는 떨어지더라도 일단 사회보장이 신년사에서 다루어질 때에는 구체적인 배경과 목표를 가지게 된다. 예컨대, 1992년의 신년사에서 사회보장은 당시 검토되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대와 연계되었고, 1997년에는 생명보험의 사회보험의 보완적 기능임으로 선언한다. 또한 2006년에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거대한 실버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생보사가 연금, 간병보험 등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일축을 담당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같은 기조는 2013년에 재확인된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생명보험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연대의 성격은 전술적 연대의 지속 혹은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과 경쟁관계에 서게 된 생명보험은 사회보험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연대의 강점과 지나친 경쟁을 피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보장성이 강한 상품을 제시하는 전략을 통해 소비자와의 전술적 연대를 시도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특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연대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별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연대 전략을 펼

침으로써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의 시기에 사회보험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관료적 연대의 비효율성과 억압적 속성을 부각시키는 전술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생명보험이 가진 연대성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시작되면서 근본적으로 기존의 관료적 연대에서 전술적 연대로 크게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흔히 생명보험의 성격 변화시기로 지목되고 있는 1997년의 IMF시기는 이미 체질적으로 진화되어 왔던 전술적 연대의 특성이 확고하게 완결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술적 연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혹은 도덕적 연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생명보험사가 변화하는 유동화의 시기 속에서 몇 가지 연대전략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포괄적인 전술적 연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생명보험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경쟁력, 성과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연구는 생명보험업의 성격 변화와 특성을 사회적 연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이 연구는 생명보험업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성격의 연대를 지향하고 표명하였는지를 질적인 자료를 통해 추적하였다. 생명보험협회장의 신년사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으로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업은 1970년대에는 국가적 연대(solidarité nationale)가 강조된 관료적 연대로 출발하였으나 1986년 시장개방을 기점으로 동업조합적 연대(solidarité corporatistes)를 강조하는 전술적 연대의 성격을 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한편으로 고객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고객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도덕적 연대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이러한 연대성 성격의 변화가 규제산업이자 금융업인 생명보험업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의 강도나 상품의 특성이 '다른 산업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금융산업인 은행업의 연대성 성격 변화는 생명보험업과 비슷할 수 있지만 요식업이나 수출주도 제조업은 상이할 것으로 짐작한다. 이 연구 결론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산업 정책 및 전략에 연대성 관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명보험업은 큰 틀인 국가적 차원에서는 관료적 연대를, 작은 틀인 동업조합적 연대에서는 전술적 연대를 활용하면서 생명보험업은 변화에 대응하고 양적 성장도 이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요자의 편익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산업 정책이나 기업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 생명보험업의 성공여부는 소비자 신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강조된 도덕적 연대는 적절한 대응이지만 이 '도덕적 연대의 성과 또는 결과는 무엇인 지' 하는 것이다. 도덕적 연대의 성과 기준은 난해한 주제이지만 높은 불완전판매율과 해약율이 지속되는 한 도덕적 연대가 잘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가설이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생명보험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축소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상품은 일상재(commodity)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많은 금융상품 등이 대체재로서 존재한다. 이 차원에서 소비자를 향한 도덕적 연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업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소비자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명보험업의 근본적인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생명보험업의 중첩적인 연대성 성격의 변화를 큰 틀에서 분석하였다. 향후 이 분야에 많은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경험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시대에 생명보험업이 특정 대상과 어떻게 개별적인 연대를 구축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분석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택, “사회적 연대의 유형과 시민문화”, **사회이론**, 제29집, 2006, pp. 245-274.
- 구하서, “우리나라 보험기업의 경영내실화와 보험정책의 과제”, **보험학회지**, 제22권, 1983, pp. 3~39.
- 금융감독원,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본 개도국의 보험감독 정책방향”, 1999.
- 김성재,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전략과 보험감독정책”, **보험학회지**, 제39권, 1993, pp. 143~180.
- 김종국 · 송덕진, “생명보험산업의 국민경제 효과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80권, 2008, pp. 3~23.
- 김지혜 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사회복지학**, 제65집 2호, 2013, pp. 131-154.
- 김진목, “공영보험의 확충과 민영보험의 자세”, **보험학회지**, 제10권, 1974, pp. 117-138.
- 김창보 · 박종연,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보험의 과제**, 연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
- 김철환, “수출외자주도 개발의 발전론적 평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해방이후에서 70년대까지**, 김병태 외 10인, 돌베개, 1981.
- 김현수 · 김재현 · 김기덕, **보험 연대를 말하다**, 2013, 이프레스.
- 남상욱, “보험업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보험학회지**, 제74권, 2006, pp. 169~197.
- _____, “한국의 보험경제학 연구 50년, 그간의 연구성과와 쟁점”, **보험학회지**, 제100권, 2014, pp. 107~150.
- 남찬섭, “‘한국 복지개혁의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경제와 사회**, 제 80집, 2008, pp. 195~223.
- 남현주, “시민사회와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본 연대성의 위기와 극복-뒤르켐, 하버마스, 롤즈 그리고 왈쩌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집 4호,

2009, pp. 137-164.

류근옥, “보험산업의 개방화와 감도정책”, **보험학회지**, 제59권, 1998, pp. 53-78.

박광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 경영에 관한 사적 고찰”, **경영사학** 8, 1993, pp. 149-224.

박길성, “연대적 공존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한국사회의 갈등정치를 넘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pp. 637-646.

방갑수, “사회보장과 자본”, **보험학회지**, 제1권, 1964, pp. 18~48.

방갑수 · 구하서 · 박은희, “한국경제개발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학회지**, 제2권, 1965, pp. 5~76.

브라운(Braun, Heinrich), **생명보험사**, 류성경 · 신동호 역,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0.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60년사**, 2010.

손호철,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과: 신자유주의로의 전진?”,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2005, pp. 213-231.

이근창, “푸르덴셜생명의 경영위기 극복사례”, **보험경영의 어제와 오늘**, 한국보험학회, 문영사, 2014.

이경룡, “한국생명보험산업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5권, 1979, pp. 57~123.

_____, “금융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윤리”, **보험학회지** 제 46권, 1995, pp.31~69.

이경룡 · 이봉주, “보험회사의 기업윤리 현황과 과제”, **보험학회지**, 제64권, 2003, pp. 137~159.

이수창, “제33대 생명보험협회장 취임사”, **생협** 2014, 12, pp. 4-7.

이순재 · 김재현, “보험산업 규제 · 감독”, **보험학 50년**, 보험학회지 50년 리뷰 논문집, 한국보험학회, 문영사, 2014.

이은주, “프랑스 복지정책의 사회적 연대 개념과 복지실천적 함의”, **보건사회연구**, 34집 2호, 2014, pp. 74-104.

이지원 · 백승욱, “한국에서 생명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한국사회학**, 제46집

- 제2호, 2012년 4월, pp. 88-122.
- 이태열,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 보험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 2014. 11. 11.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2014.
- 장은주, “존엄한 시민들의 공화국-민주적 연대성의 이념과 공공성”, **철학연구**, 제101집, 2007, pp. 127-155.
- 정대성, “권리와 자격의 공동체에서 욕구와 연대의 공동체로”, **철학논총**, 제59집, 2010, pp. 289-312.
- 조영훈, “자유주의 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민영보험의 상대적 발달을 중심으로”, **상황과복지**, 제19호, 2004, pp. 311-337.
- 정영의, “79년도 보험정책 방향”, **보험학회지**, 제15권, 1979, pp. 149~162.
- 정홍주, “보험산업의 특성에 따른 경영전략과 보험감독정책”, **보험학회지**, 제49권, 1997, pp.313~350.
- 제라이저(Zelizer, V.A.R), 죽음의 문화와 생명보험: 미국 생명보험발달사, 원용찬 역, 신아.
- 진륜현, “보험자금형성과 경제성장”, **보험학회지**, 제9권, 1972, pp. 13~39.
- 진익 · 오병국 · 이성은,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2013.
- 최옥채, “조선 중종대 빈곤과 구제-중종실록과 해석학 관점 중심으로”, **사회복지학회지**, 제63집 4호, 2011, pp. 261-284.
- 플릭(Flick, Uwe),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외 역, 한울, 2009.
- 한국보험학회, **보험학 50년**, 문영사, 2014,
- 한국보험학회 생명보험연구위원회, “생명보험과 사회보험의 경쟁과 협조”, **보험학회지**, 제4집, 1966, pp. 19~29.
- 홍윤기, “연대와 사회결속: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 **시민과 세계**, 제17집, 2010, pp. 45-64.

Ludovic, Vievard, Les fondements théoriques de la solidarité éd. grand Lyon, 2011.

MacLean J. B., *Life Insurance*, 6th ed. McGraw-Hill Insurance series, New York, 1945.

Taylor Peter, "Markets and Motives: Trust and Egoism in Welfare Markets", *Journal of Social Policy* 28, 1999, pp. 97-114.

Abstract

Most literature on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ave focused on economic and management concepts such as competitiveness, performance, and efficiency. This study; however, qualitativel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based on the social solidarity concept. In the beginning,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ad grown oligopolistically but it has developed very competitively after the market opening in late 1980s. This paper examines the solidarity characteristic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by a content analysis with a hypothesis that it must be changed over the decades.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1970s could be viewed as 'bureaucratic solidarity' strongly, which is evidenced based on Kang(2006)'s solidarity classification standard. It demonstrated the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solidarity' right after the life insurance market opening in 1986. However, it also pursued 'moral solidarity while respecting consumers' autonomy since 1990s when the influence of consumers became stronger.

※ **Key words:** life insuranc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solidarity, social solidarity, solidarity characteristics, content analysis

【부록】 26)

〈표 1〉 사회적 연대의 유형

		연대의 지향성			
		목적지향성		도구지향성	
근거		감정성	합리성	감정성	합리성
관계 성격	타율성	유형 1 전근대 공동체적 연대	유형 2 분파적 연대	유형 3 이데올로기적 연대	유형 4 관료제적 연대
	자율성	유형 5 미학적 연대	유형 6 성찰적 연대	유형 7 도덕적 연대	유형 8 전술적 연대

〈표 2〉 사회적 연대 유형의 비교

구분	연대지향	연대의 근거	관계의 성격	특성 및 사례
유형 1 전근대 공동체적 연대	연대가 목적	공유속성에 근거 일체감/의무감 감정/정서 중요	타율적/폐쇄성	전근대/봉건 혈연, 지연, 신분 귀속적 집단
유형 2 분파적 연대	연대가 목적	합리성을 근거 합리적 정당화	자율성 억제 집합성/폐쇄성	근대초 비정치적 공동체 유토피안 혁명집단
유형 3 이데올로기적 연대	연대는 도구	감정에 기반	자율성 억제	인위적으로 조작 된 집합적 감정이 중요 파시즘
유형 4 관료제적 연대	연대는 도구	합리성에 기반	자율성 억제 권위주의적 속성	관료적 근대조직
유형 5 미학적 연대	연대가 목적	감정적 요소에 기반 일체감/안전감	자율성 부여	축제/이벤트 대중문화/사이버 공동체
유형 6 성찰적 연대	연대가 목적	합리성 기반 의사소통적 합리성	자율성/개별적 관점의 존중	협동조합/생협 정보공유/자기의 사결정 존중
유형 7 도덕적 연대	연대는 도구	자발적 감정동원 타인에 대한 인격적 관심	개별적 자율성 존중	타인에 대한 관심 자율적 책임감
유형 8 전술적 연대	연대는 도구	합리성에 근거 전략적 합리성	자율적이고 개방적	근대이후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

26) 본 부록의 표와 그림은 본문의 표와 그림을 국문화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임(편집자 주).

〈표 3〉 생명보험협회 신년사 내용분석 사례(1975년)

구분	내용	핵심어	주제어
게재 연월	1975. 봄	-	-
제목	보람을 느끼는 생명보험인	-	-
저자	원종훈 회장	-	-
문장 수	17개	-	-
핵심문장 1	생명보험사업은 다른 어느 기업보다 협조와 단결이 필요하다.	협조, 단결	협력
핵심문장 2	생명보험사업은 한 사람 자본가의 이익이나 기업에 참여한 소수 주주들의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의 공기로써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공기, 국가경제발 전	경제 개발
핵심문장 3	가격과 서비스경쟁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보험사'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비용의 절감과 소비자의 편익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시장친화, 비용절감, 소비자편익	경영선 진화/ 소비자 보호
핵심문장 4	협조와 단결로 보험사업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 복리도 국가의 부강도 더욱 알차게 이루어 질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복리, 국가부강	사회보 장/경제 개발
핵심문장 5	사회보장의 역군으로서 자신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일한 보험인들이...	사회보장의 역군	사회 보장

〈그림 1〉 생명보험협회 신년사의 주제어 분포도(1974~2015년)

